

한일 의뢰행동의 의뢰 스토라테지의 대조분석

-대학생의 담화완성테스트 자료 분석을 통해서-

김 중 완*

(e-mail : tegamikure@hanmail.net)

<목 차>

- | | |
|----------------|------------------------|
| 1. 연구목적 | 4. 분석결과 |
| 2. 조사방법 | 4.1.주의환기부와 보조수반부의 사용실태 |
|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4.2.의뢰부의 의뢰스토라테지의 사용실태 |
| | 4.3.주요행위부의 시점에 의한 분류 |
| | 5. 결론 및 금후의 과제 |

キーワード：依頼(request), 對照研究(Contrastive Study), 談話完成テスト(Discourse Completion Test), ストラテジー(strategy), 異文化間語用論(cross-cultural pragmatics)

1.연구목적

이문화화용론(cross-cultural pragmatics)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언어사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언어행위(linguistic action)에 관한 연구이다. 문화의 차이가 언어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화용론의 구조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문화화용론의 목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특정 언어문화에 있어서의 언어의 기능이나 구조와 사회문화적 문맥과의 체계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문화화용론의 연구방법은 복수언어의 대조연구이다. 대화참여자가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시키면서 어떻게 언어행위를 하는 지를 밝히기 위해서 연

* 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시간강사, 사회언어학, 담화분석

구자는 복수의 서로 다른 문화나 언어를 비교하는 것이다. 대상으로 하는 화용론적 특징은, 직접성과 간접성의 정도, 발화내효력이나 폴라이토네스를 전달하는 스트라테지와 언어형식의 범위 및 그들의 문맥적인 분포, 상황인식 방법, 발화행위에 주어지는 문맥변수의 영향등 광범위하다.

이 연구들에 의해서 언어를 초월하여 공통된, 보편적인 특징과 함께 화용론적, 담화적 기능의 선택과 실현에 관한 문화간, 언어간의 상이점을 알게 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1980년대 중반에 실시된 「이문화간 발화행위 실현 프로젝트」(The Cross-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CCSARP)가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의 협력을 얻어서 실시되었다.

- (1) 동일한 사회제약 아래에서의 서로 다른 언어사이의 발화행위의 실현패턴에 관한 유사점과 상이점을 밝힌다(이문화간변이)
- (2) 특정 언어 공동체내의 발화행위의 실현 패턴에 대한 사회적 변수의 영향을 밝힌다.(사회화용론적 변이)
- (3) 동일한 사회적 제약 아래서의 대상언어의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의 발화행위의 실현 패턴에 관한 유사점과 상이점에 관한 연구(중간언어변이)

이 CCSARP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과 일본에서도 주로 의뢰, 사죄, 감사, 권유, 거절과 같은 언어행위에 관한 대조연구와 접촉장면에서 각 언어의 학습자들의 발화행위의 특징(중간언어)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의뢰행동에 나타나는 의뢰표현에 관해서는 오기노 외(荻野他1990), 나카미즈(エレン・ナカミズ1992), 가시와자키(柏崎秀子1993), 오고시(生越1995), 하마다(浜田1995), 가와무라(河村光雅1999), 유혜정(柳慧政2005), 세키구치(關口2007), 아크도안·오하마(アクトーアン・ブナル・大浜るい子2008) 등, 일본어 모어화자와 한국어 모어화자 및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 등과의 비교를 통해서 의뢰행동에 사용되는 의뢰표현의 사용실태를 의뢰자와 피의뢰자의 사회적 속성(나이, 권력관계, 의뢰내용의 부담도, 지역)에 따라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구마이(熊井1992), 구마가이(熊谷1995), 나카미치·쓰치이(中道・土井1995), 엄정미(嚴廷美1999), 유혜정(柳慧政2007), 이토(伊藤2003), 이자키(猪崎保子2000a, 2000b), 가시와자키(柏崎秀子), 강석우(姜錫祐2007), 쓰치다(槌田和美2003) 등은 일본어와 한국어, 중국어에 나타나는 의뢰행동의 언어 스트라테지의 특

정을 대인배려적 언어 스트라테지를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87)의 폴라이토네스 이론에 근거하여 적극적 체면유지 전략과 소극적 체면 유지 전략 가운데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 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국어와 일본어의 의뢰행동에 관한 대조 연구들은 그 분석기준이 다른 언어들의(특히, 영어권의 분석기준)과는 동떨어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CCSARP의 분류기준을 사용해서 영어 및 유럽 언어들의 의뢰표현 및 의뢰스트라테지의 연구결과들과 비교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일 대학생의 의뢰행동에 관한 담화완성테스트 분석자료를 CCSARP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의뢰행동에 사용되는 의뢰표현과 의뢰스트라테지의 특징을 밝히려고 한다.

2. 조사개요

본고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담화완성테스트를 실시하였다.¹⁾ 본고에서는 언어 외적요소의 차이(연령, 사회적 지위, 의뢰 내용의 부담도)에 의한 의뢰행동의 특징을 분석하기보다는, 동일한 언어상황에서 나타나는 모어화자의 의뢰행동의 실태를 분석하여, 한국어와 일본어 의뢰행동에 사용되는 의뢰표현과 의뢰스트라테지의 언어적 특징을 규명하려고 한다.

조사에 사용한 의뢰상황은 미국 대학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도교수(3~40대의 여성)의 연구실을 방문해서 동의서와 추천서를 부탁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의뢰상황은 아래와 같다.

<언어행동의 상황설정>

- ① 학생의 상황: 학생은 A항공사가 실시하는 미국 대학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한다.

1) 담화완성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을 이용한 연구 방법은 특정 화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변인을 연구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연구자가 얻고자 하는 화행 자료들을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다량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실제 사용하는 구어와는 다른 자료를 수집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전체 발화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한일 의뢰스트라테지의 스트레오 타입을 파악한다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담화완성테스트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본고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금후 인터뷰 조사를 통한 실제 대화자료를 분석하기로 한다.

- ② 필요한 서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학생이 작성), 지도교수의 동의서(지도교수가 보증인이 됨), 동의서에는 지도교수의 개인정보(연령, 수입, 주거 등)를 기입하는 항목이 있고, 보증인이 되는 것을 승낙한다는 서명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이 외에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있으면 심사에 반영된다는 규정이 있다.
- ③ 지도교수와의 관계: 지도교수는 30~40대의 선생님이로 몇 번 이야기를 나누어 적어 있다.²⁾

위와 같은 의뢰장면을 설정하여 의뢰행동의 스트레오타입을 밝히기 위한 담화 완성테스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질문) 이 때 귀하가 교수님께 실제로 부탁을 드린다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교수님: 오늘 오기로 했었지? 그런데 무슨 일이지?

귀 하: _____

구체적인 조사시기, 조사지역, 조사대상자수는 <표1>과 같다.

<표1> 조사시기와 조사대상자

국가	조사시기	조사지역 및 조사대학	조사대상자/ 분석대상자
한국	2009년 5월~6월	서울 / 중앙대학교	416명/ 354명
일본	2009년 7월, 12월 2010년 4월	도쿄/明海大學, 實踐女子大, 清泉女子大, 首都大學東京, 東京大學, 橫濱國立大學, 早稻田大學	414명/ 352명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CCSARP의 분석모델에 의하면, 의뢰행위의 발화는 (A) 주의환기부(alerter), (B) 보조수반부(supportive move), (C) 주요행위부(head act)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3부분으로 구성된다.³⁾

2) 톨플레잉 조사는 2008년도에 선정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인 ‘한중일 3국의 이문화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보편성과 특수성 연구’의 연구 자료를 이용하였다. 필자는 이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원으로 참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A) 주의환기부(alerter)

이름, 호칭부르기 등에 의해서 상대의 주의를 환기하는 부분

(B) 보조수반부(supportive move)

사정의 확인, 이유의 제시, 중요성 강조 등 상대를 재촉해서 의뢰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요행위부(head act)의 전후에 추가하는 부분. 의뢰의 효력(FTA)을 경감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⁴⁾

(C) 주요행위부(head act)

실제로 의뢰표현을 사용해서 의뢰행동을 하는 부분

그리고 주요행위부(head act)는 사용되는 언어표현의 형식의 직접성의 강약에 따라서 9개의 세부적인 의뢰 스트라테지로 분류한다.

<표2> Blum-kulka, House & Kaspre의 요청화행의 주전략⁵⁾

의뢰표현의 분류	예 문
(1) 서법에 의한 도출 (Mood Derivable)	“동의서 작성도 해 주시고요.” “同意書を書いてください
(2) 명백한 수행문의 사용 (Explicit Performative)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お願いします
(3) 약화된 수행문의 사용 (Hedged Performative)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署名のほうをいただけたらなと思ひまして
(4) 의미의 도출 (Location Derivable)	교수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同意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5) 소망의 표시 (Want statements)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ちょっと頂きたいのですが
(6) 제안성 어구의 사용 (Suggestory Formulae)	도움을 청해도 괜찮겠습니까? おねがいしてもよろしいですか。
(7) 예비적 조건 언급 (Preparatory)	추천서 좀 써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その推薦状を書い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8) 강한 암시 (Strong Hint)	동의서와 추천서를 쓰كم... 今回伺ったんですけれども...
(9) 약한 암시 (Mild Hint)	본고의 분석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음

3) 清水崇文(2009)에서 인용 및 정리

4) 의뢰의 효력(FTA)을 경감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수반부는 주요행위부의 전후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주요행위부 안에서도 사용되어 의뢰의 효력을 경감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행위부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표현들도 보조수반부로 취급한다. 주요행위부 안에 사용되는 보조수반부를 내적 보조수반부, 주요행위부 전후에 사용되는 보조수반부를 외적 보조수반부로 분류한다.

5) 최수진(2008)을 참조

또한, 주요행위부(head act)는 동작주를 누구로 하는가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 화자 지향, (2) 청자지향, (3) 포괄, (4) 비인칭으로 분류할 수 있다.

CCSARP에서는 의뢰행동에 사용되는 언어표현을 그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여 그 사용실태의 분석을 통해서 언어의 기능이나 구조와 사회문화적 문맥과의 체계적 관계를 밝혀왔다. 이러한 CCSARP의 분석모델을 사용하여 본고의 분석자료에 나타난 담화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분석예1)

お忙しいところ、すみません。實はAA 航空會社のプログラムでアメリカの
(보조수반부-사죄)

大學を訪問するといふものがありまして、(중략)

あつてがましいのはわかっておりますが、もし、よろしかったら、
(보조수반부-상황인식) (보조수반부-의사존중)

先生の推薦状も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
(주요행위부)

본고에서는 CCSARP의 분석모델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한일 의뢰표현의 대조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서양 언어들과 동일한 분석기준을 사용해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의뢰표현과 의뢰스트라테지의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4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한다.

- (1) 주의환기부, 보조수반부의 사용실태
- (2) 주요행위부의 9가지의 의뢰스트라테지의 사용실태
- (3) 주요행위부의 시점에 의한 사용실태

4. 분석결과

본고의 분석자료를 CCSARP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4.1. 주의환기부와 보조수반부의 사용실태

본고의 분석자료에 나타난 주의환기부와 보조수반부의 사용실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3> 주의환기부와 보조수반부의 사용실태

	주의환기부			보조수반부									
				내적		외적							
	인사	호칭	합계	의사존중	상황인식	사죄	중요성강조	보상	확인	감사	피해행동	대안제시	
한국어	76 (45.2)	92 (52.8)	168 (100)	41 (17.5)	60 (25.5)	15 (6.4)	48 (20.5)	9 (3.8)	8 (3.4)	19 (8.1)	30 (12.8)	4 (1.7)	234 (100)
일본어	4 (100)	0 (0.0)	4 (100)	39 (15.5)	50 (19.9)	48 (19.1)	42 (16.7)	21 (8.4)	29 (11.6)	0 (0.0)	19 (7.6)	3 (1.2)	251 (100)

<표3>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어 분석자료에서는 <주의환기부>인 「인사」와 「호칭」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어 분석자료에서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인사」와 「호칭」은 분석자료의 담화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으로 지도교수에게 동의서와 추천서를 의뢰해야 한다는 주어진 상황의 부담도를 조금이라고 줄여서 의뢰자가 목표로 하는 의뢰행동을 성공시키기 위한 발화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한국어에서는 「인사」를 함으로써 지도교수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지도교수와 본인과의 심적인 거리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어 분석자료에서는 담화의 시작을 한국어와는 달리 「사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담화완성테스트의 분석자료에서는 일본어의 경우 <주의환기부>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김종완(2018)에서는 실제 롤플레이팅 인터뷰 조사의 담화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지도교수의 연구실에 입실하면서, ‘しつれいします’와 ‘こんにちは’라는 <주의환기부>를 사용하고 있다. 그에 비해 본고의 분석자료인 담화완성테스트에서는 <주의환기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사용실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한국어 분석자료는 그러한 조사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사」와 「호칭」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 두 개의 발화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행위부> 전후와 <주요행위부> 안에서 사용되는 <보조수반부>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주요행위부>의 의뢰표현 안에서 사용되는 내적 보조수반부는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주요행위부의 전후에 사용되어서 의뢰 효과의 강화나 경감하는 역할을 하는 외적 보조수반부의 사용실태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 사용실태는 한국어에서는 「중요성 강조」 > 「피해행동」 > 「감사」 > 「사죄」 > 「보상」의 순이고, 일본어에서는 「사죄」 > 「중요성 강조」 > 「확인」 > 「보상」 > 「피해행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수반부의 사용실태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일본어 분석자료에서는 「사죄」, 「확인」, 「보상」의 사용이었고, 한국어 분석자료에서는 「감사」, 「피해행동」의 사용이었다. 일본어 분석자료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의뢰를 할 때 발생하는 FTA를 경감시키고 해소하기 위해서 발화의 첫 부분에서 「사죄」를 하고, 한국어 분석자료에서는 「감사」 표현을 사용하거나 「피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그 효과를 달성하려고 한다.

분석예2)

お忙しいところすみません。實は、アメリカの大學を訪問できるプログラムが
(보조수반부-사죄)

ありまして、その申し込みに指導教授の同意書が必要なんです。そこで、教授
に同意書の作成をお願いしたいのですが、よろしいでしょうか？

(주요행위부)

(보조수반부-확인)

분석예3)

안녕하세요. ○○학과 ○○학번 ○○○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환기부-인사)

(보조수반부-감사)

제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려 하고 이러한 이유로 꼭 하고 싶은데
교수님의 동의서가 있다면 될 확률이 커집니다.

(보조수반부-중요성 강조)

부담되실 줄 알지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보조수반부-상황인식) (주요행위부+보조수반부-감사)

특히 분석예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어 분석자료에서는 <주요행위부>에 사용하는 의뢰발화에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이 감사를 나타내는 언어표현을 추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죄」로 FTA를 줄이려고 하는 일본어와 지도교수의 행동(의뢰의 수락)에 대해서 미리 「감사」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FTA를 줄이려고 하는 스트라테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4.2. 의뢰 스트라테지의 사용실태

한국어 분석자료와 일본어 분석자료의 <주요행위부>에 사용된 의뢰표현을 CCASRP의 의뢰 스트라테지 분류기준에 따라 나누면 아래와 같다.

<표4> 분석자료의 의뢰스트라테지의 사용실태

의뢰 스트라테지의 분류	사용수	
	한국어	일본어
(1) 서법에 의한 도출(Mood Derivable)	4(1.2%)	1(0.3%)
(2) 명백한 수행문의 사용(Explicit Performative)	41(12.0%)	19(5.3%)
(3) 약화된 수행문의 사용(Hedged Performative)	127(37.1%)	46(12.9%)
(4) 의미의 도출(Location Derivable)	84(24.6%)	51(14.3%)
(5) 소망의 표시(Want statements)	16(4.7%)	83(23.2%)
(6) 제안성 어구의 사용(Suggestory Formulae)	18(5.3%)	21(5.9%)
(7) 예비적 조건 언급(Preparatory)	41(12.0%)	121(33.9%)
(8) 강한 암시(Strong Hint)	11(3.2%)	15(4.2%)
(9) 약한 암시(Mild Hint)	0(0.0%)	0(0.0%)
합계	342(100%)	357(100%)

<표4>를 살펴보면, 한국어 모어화자는 「약화된 수행문의 사용」 > 「의미의 도출」 > 「예비적 조건언급」, 「명백한 수행문의 사용」의 순서로 의뢰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어 모어화자는 「예비적 조건 언급」 > 「소망의 표시」 > 「의미의 도출」 > 「약화된 수행문의 사용」 순으로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지도교수에게 동의서와 추천서를 부탁하는 동일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의뢰표현의 사용실태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는 (1)이 가장 직접적인 의뢰표현이고 (9)로 갈수록 간접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일본어 분석자료의 의뢰 스트라테지에 비

해서 한국어 분석자료의 의뢰 스트라테지가 더 직접적이고 명백한 수행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의뢰 스트라테지는 한국어 분석자료에서는 「약화된 수행문의 사용」이고 일본어 분석자료에서는 「예비적 조건 언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사회적 상황(지도교수와 학생의 의뢰상황) 아래서 사용되는 의뢰 스트라테지의 실태는 한국어와 일본어 언어사회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1. 한국어의 의뢰스트라테지의 사용실태

본고의 한국어 분석자료에 나타나는 의뢰스트라테지의 사용 빈도는 「약화된 수행문의 사용」 > 「의미의 도출」 > 「예비적 조건언급」, 「명백한 수행문의 사용」의 순이었다.

「약화된 수행문의 사용」은 수행동사에 울타리치기 표현(Hedge)을 추가해서 의뢰행동이 가지는 FTA를 경감시키려고 하는 의뢰 스트라테지이다. 한국어 분석자료에서는 주로 ‘동의서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서를 써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려고 합니다’와 같은 의뢰표현이 사용되었다. 즉, ‘동의서를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의뢰표현(‘명백한 수행문의 사용’)에 ‘~으면 합니다’, ‘~려고 합니다’와 같은 울타리치기 표현(Hedge)을 추가하는 것이다.

분석예4)

제가 A항공사에서 실시하는 미국대학 탐방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교수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동의서 작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수반부-의사존중) (주요행위부+보조수반부-감사)

그러한 울타리치기 표현 가운데, 한국어 분석자료에서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이 지도교수의 행동에 감사를 나타내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다. 지도교수의 행동에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고마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 분석자료에서는 의뢰 전 후(보조수반부)나 의뢰표현에 지도교수의 행동(의뢰의 수락)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의뢰목적의 달성하려고 하는 스트라테지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어 분석자료에서는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うれしいです、ありがたいです’라는 울타리치기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반면, ‘作成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와 같이 수수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지도교수의 행동에 대해서 감사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명백한 수행문의 사용」은 ‘부탁드립니다’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크게 ‘부탁드립니다’와 ‘부탁드리러 왔습니다’의 의뢰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수행문을 사용하는 의뢰스트라테지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이 한국어 분석자료에 나타나는 의뢰 스트라테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백한 수행문의 사용」은 청자(지도교수)에게 부담이 되는 체면손상행위(FTA)이기 때문에 주로 그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성 강조」나 「피해행동삼가」의 보조수반부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분석예5)

다름이 아니고, 제가 미국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 꼭 지원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았는데 ~ 한 점에서 특히 도움이 됩니다. (중략)

(보조수반부-중요성 강조)

곤란하실까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지원조차 해보지 않는 것이 후회로 남을까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보조수반부-중요성 강조)

교수님께 피해나 문제가 될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보조수반부-피해행동삼가)

(주요행위부)

‘예비적 조건 언급’은 분석예6)처럼 “~ 써 (작성해) 주실 수 있으세요?”와 “부탁드려도 될까요?”와 같이 지도교수의 능력과 의향을 묻는 표현과 허가를 구하는 표현이 주로 나타났다.

분석예6)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약속을 한 1학년 ○○○입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

(주의환기부-인사, 호칭)

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미국탐방프로그램에 참가하려 하는데 교수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실례되지 않는다면 좀 써주실 수 있으세요?

(보조수반부-상황인식) (주요행위부)

일본어 분석자료에서는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의뢰 스트라테지인데, 한국어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지도교수의 능력과 의향을 묻는 체면손상행위(FTA)의 경향이 나타나는 표현이기 때문인지 그 사용빈도가 일본어 분석자료에 비해서는 적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어 분석자료에 나타나는 ‘예비적 조건 언급’은 주로 ‘作成していただけますか’와 같이 수수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지도교수의 능력을 묻는 체면손상행위(FTA)를 회피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어 의뢰발화에서는 그러한 회피 장치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4.2.2. 일본어의 의뢰스트라테지의 사용실태

일본어 모어화자의 의뢰표현은 「예비적 조건 언급」 > 「소망의 표시」 > 「의미의 도출」 > 「약화된 수행문의 사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분석자료와 비교해서 「예비적 조건 언급」과 「소망의 표시」의 사용을 선호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어 분석자료의 경우에는 「예비적 조건 언급」의 의뢰 스트라테지는 지도교수의 능력이나 의향을 묻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의 능력이나 의향을 직접적으로 묻는 표현은 체면손상행위(FTA)의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의뢰 스트라테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어 분석자료에서는 「예비적 조건 언급」의 사용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일본어 분석자료에 나타나는 「예비적 조건 언급」은 한국어 분석자료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예7)

プログラムに参加したいのですが、教授の同意書が必要です。

迷惑となる行動はとりませんので、同意書を作成し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

(보조수반부-피해행동참가) (주요행위부)

한국어 분석자료에 나타난 「예비적 조건 언급」의 “동의서를 써 주실 수 있으세요”를 일본어로 번역하면, “同意書を作成していただけますか”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청자(지도교수)의 능력을 묻는 표현은 일본어 분석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어 분석자료에 나타난 「예비적 조건 언급」의 의뢰 표현은 크게 수수표현(授受表現)인 ‘作成していただけますか’와 ‘お願いできま

すか'가 나타났다. 즉, 수수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동의서를 작성하는 행위의 주체는 지도교수이지만(同意書を作成する),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발화의 주어를 의뢰자로 함으로써,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동의서를 요구하는 의뢰행위가 가지는 체면손상행위(FTA)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수표현을 사용하는 「예비적 조건 언급」의 의뢰 스트라테지는 ‘作成していただけますか’와 같이 부정의문형이 긍정의문형 ‘作成していただけますか’보다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뢰표현에서의 부정형의 사용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정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지도교수와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의뢰 스트라테지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수수표현을 사용하는 의뢰 스트라테지는 「소망의 표시」에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소망의 표시」 의뢰 스트라테지는 한국어 분석자료에서는 사용빈도가 상당히 낮는데 비해서 일본어 분석자료에서는 그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예8)

はい、私は以前からアメリカの大學を訪問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して、訪問できるプログラムがあると知ってぜひ参加したいので、先生に同意書を書い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お願いできませんか。

분석예9)

はい、アメリカの大學を訪問できる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ための同意書を書いていただきたくて来ました。

분석예10)

~プログラムに参加しようと思っているのですが、先生の御署名等が必要なので、よろしければ記入し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

「소망의 표시」 의뢰 스트라테지에 사용되는 의뢰표현으로는 ‘~ていただきたい’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소망의 표시」에서는 분석예8)~분석예10)처럼 ‘きました’나 ‘おねがいできますか’와 같이 의뢰표현의 뒤에 추가적인 표현들이 첨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발화를 “よろしければ記入し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처럼 뒤의 발화를 생략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단정적으로 나타

내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 분석자료에 나타나는 ‘동의서를 써 주셨으면 합니다’와 같이 희망표현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자신의 희망하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뢰 전략이라고 여겨진다.

4.3. 주요 행위부의 시점에 의한 분류

CCSARP에서는 주요행위부(head act)인 의뢰표현에 사용되는 수행동사의 수행주체를 누구로 해서 이야기하는 지에 따라서 (1)화자 지향(의뢰자), (2) 청자지향(지도교수), (3) 포괄, (4)비인칭으로 분류하였다. 본고의 분석자료에서는 이 가운데 (3)포괄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고의 분석자료에 나타난 시점에 의한 주요행위부(의뢰표현)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5> 의뢰표현의 시점에 따른 분류

	한국어			일본어		
	화자지향 (의뢰자)	청자지향 (지도교수)	비인칭	화자지향 (의뢰자)	청자지향 (지도교수)	비인칭
1	0(0.0%)	4(1.2%)	0(0.0%)	0(0.0%)	1(0.3%)	0(0.0%)
2	33(9.6%)	7(2.0%)	1(0.0%)	18(5.0%)	1(0.3%)	0(0.0%)
3	86(25.1%)	37(10.8%)	3(0.9%)	38(10.6%)	7(2.0%)	1(0.3%)
4	43(12.6%)	6(1.8%)	37(10.8%)	19(5.3%)	5(1.4%)	27(7.6%)
5	8(2.3%)	8(2.3%)	0(0.0%)	49(13.7%)	34(9.5%)	0(0.0%)
6	8(2.3%)	9(2.6%)	0(0.0%)	17(4.8%)	3(0.8%)	1(0.3%)
7	2(0.6%)	38(11.1%)	1(0.3%)	56(15.7%)	64(17.9%)	0(0.0%)
8	4(1.2%)	2(0.6%)	5(1.5%)	6(1.7%)	0(0.0%)	8(2.2%)
	184(53.8%)	111(32.5%)	47(13.7%)	203(56.9%)	115(32.2%)	37(10.4%)

<표5>를 살펴보면 한국어 분석자료와 일본어 분석자료 모두 화자지향의 의뢰표현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고 청자지향, 비인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CCSARP의 조사를 기반으로한 Blum-Kulka(1989)의 유럽 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호주영어,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헤브라이어)에 나타나는 의뢰전략의 조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⁶⁾

6) 清水崇文(2009)에서 재인용 및 정리

Blum-Kulka(1989)에 의하면 유럽언어에서는 “Could you clean up the kitchen, please?”와 같은 청자지향의 의뢰표현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의 경우 「청자지향」이 97.4%나 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영어 및 유럽 언어에서는 의뢰행위를 청자(의뢰를 받아 주는 사람)의 행위라고 여기는 데 비해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의뢰행동을 화자(의뢰자)의 행위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자지향의 성향이 강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의뢰 스트라테지도 구체적인 언어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차이를 보인다. 가장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예비적 조건 언급」의 의뢰스트라테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분석자료에 나타나는 「예비적 조건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주로 “작성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써 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하신가요?”와 같이 청자지향의 의뢰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예11)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XX과 △△△입니다. 바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탁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제가 미국 대학 탐방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는데, 교수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작성해주실 수 있으시나요?

그에 비해 일본어 분석자료에 나타나는 「예비적 조건 언급」을 살펴보면 주로 “どうかお願いできませんでしょうか。”, “同意書にサインを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 “よろしければ、この同意書を書いていただけませんか。”와 같은 의뢰표현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お願いできませんかとサインを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는 화자지향의 의뢰표현이다. 그리고 나머지 “書いていただけませんか。”의 표현은 청자지향의 의뢰표현이다. 하지만, 이 청자지향의 의뢰표현은 한국어 분석자료의 「예비적 조건 언급」에 청자지향의 의뢰표현과는 다른 점이 있다.

분석예12)

アメリカの大學を訪問したいと考えていて、それには指導教授の同意書が必要となってしまうんですが、書いていただけますか。

분석예12)처럼 청자지향의 의뢰표현을 사용하지만, 일본어의 경우 수수표현인 ‘～ていただけますか’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마치 화자지향의 의뢰표현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 일본어 수수표현이 가지고 있는 청자의 행동에 대한 고마움, 은혜(恩惠)를 나타내는 특징을 적극 이용한 관용적인 의뢰표현이라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금후의 과제

본고에서는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추천서를 의뢰하는 동일한 상황에서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의뢰 스트라테지를 담화완성테스트(DCT)의 조사자료를 Blum-Kulka 등이 주도한 「이문화간 발화행위 실현 프로젝트」 (The Cross-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CCSARP)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뢰행위가 가지는 체면손상행위(FTA)의 경감을 위해서 한국어는 의뢰표현의 전후에 감사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어는 사죄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뢰행위의 주행위부에 나타나는 의뢰 스트라테지의 특징은 한국어 분석자료에서는 ‘약화된 수행문의 사용’과 ‘명백한 수행문의 사용’, ‘약화된 수행문의 사용’, ‘의미의 도출’이 자주 나타나고, 일본어 분석자료에서는 ‘예비적 조건 언급’, ‘소망의 표시’, ‘의미의 도출’이 자주 나타나서, 동일한 언어 상황아래에서 사용하는 의뢰 스트라테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뢰행위를 의뢰자와 피의뢰자의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 행위라고 생각하는 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시점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보았다. 그 결과, 영어 및 유럽 언어들과는 달리 화자 지향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담화완성테스트의 담화자료를 분석해서 CCSARP의 분석방법에 따라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의뢰표현 및 의뢰 스트라테지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유사점과 상이점을 알 수 있었다.

금후의 과제로서는 이러한 언어문화적인 특징을 가지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의뢰스트라테지가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환경인 접촉장면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를 인터뷰 조사를 통해 얻어진 담화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보고 한다.

【참고문헌】

- 김중완(2013) 「한중일 의뢰행동의 스트라테지의 대조연구— 설문지 조사의 ‘정보제공’의 실태 분석을 통해서 —」 『日本文化研究』 第48輯, 동아시아일본학회
- _____(2018) 「한중일 의뢰행동에 나타나는 상호행위 양상 연구 - 대화개시부의 분석을 중심으로-」 『日本研究』 48集, 中央大學校日本研究所, pp.71-88.
- 최수진(2008) 「한국어와 중국어의 요청화행 대조 분석 연구」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Vol.10, pp.160-186.
- アクダーアンプナル・大浜のい子(2008) 「日本人學生とトルコ學生の依頼行動の分析—相手配慮の視点から—」 『世界の日本語教育18』, 國際交流基金日本語センタ, pp.57-72.
- 池田裕・三好里英・淺井尚子・章突(2000) 「中國人日本語學習者の言語行動—日本語と中國語における依頼—」 『多摩留學生センター教育研究論集』 2
- 岡本眞一郎(1985) 「要求の言語表現の検討」 『愛知學院大學文學部紀要』 14, pp.29-42.
- _____(1988) 「依頼表現の使い分けの規定因」 『愛知學院大學文學部紀要』 18, pp.7-14.
- 沖裕子(2010) 「日本語依頼談話の結節法」 『日本語學研究』 第28輯, 韓國日本語學會, pp.119-136.
- 嚴廷美(1999) 「日本語と韓國語の依頼の構造とストラテジー—moveの觀點から—」 『言語情報科學研究』 第4号, 東京大學言語情報科學研究會, pp.47-68.
- 姜錫祐(2007) 「韓國人と日本人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行動に關する比較對照研究—依頼行動における依頼主の意識に注目して—」 『日本語學研究』 19, 韓國日本語學會, pp.13-28.
- 熊井造子(1992) 「外國人の待遇行動の分析(1)—依頼行動を中心に—」 『靜岡大學教養部研究報告 人文・社會科學編』 第28卷第1号, 靜岡大學教養部, pp.271-314.
- 熊谷智子(1995) 「依頼の仕方—國研岡崎調査のデータから—」 『日本語學』 Vol.14, 10月号, 明治書院, pp.22-32.
- 笹川洋子 (1999 「アジア社會における依頼のポライトネス (for you or for me)について—日本語・韓國語・中國語・タイ語・インドネシア語の比較—」 『親和國文』 Vol. 34, 神戸親和女子大學, pp.154-181.
- 謝恩(2001) 「談話レベルから見た「依頼發話」の切り出し方—日本人大學生同士と中國人大學生同士の依頼談話から—」, 『日本語教育年報』 5, pp.77-101.
- 清水崇文(2009) 『中間言語語用論』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 柳慧政(2004) 「依頼談話の日韓比較研究—依頼のための情報提供の現れ方を中心に—」 『日本學報』 第58輯, 韓國日本語學會, pp.163-174.
- _____(2005) 「韓國語と日本語の依頼表現の對照研究—依頼表現の使い分けを中心に—」 『日本語日文學研究』 53輯, 韓國日語日文學會

논문 투고 일자 : 2018. 10. 13. 논문 심사 일자 : 2018. 11. 07. 게재 확정 일자 : 2018. 11. 09.

 <要旨>

 日本語と韓国語の依頼行動の依頼ストラテジーの対照分析
 —大學生の談話完成テストの分析を中心に—

金鍾完

本稿は韓国と日本の大學生を対象に指導教官に推薦状を依頼する際に使う依頼表現と依頼ストラテジーを異文化語用論の観点から考察したものである。分析には1980年代に行われた「異文化間發話行為表現プロジェクト」(The Cross-Culut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CCSARP)を基に行われた。

その結果、韓国語と日本語の依頼ストラテジーは異なっ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韓国語は、注意喚起部として“先生”、“こんにちは”のような呼び掛けや挨拶表現をよく使っ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このような發話を通じて、指導教官との親密感を高めようとしている。FTAを軽減する表現として使われる補助手番部の使用は、韓国語は感謝などの表現をよく使っているのに對して、日本語は謝罪などの表現をよく使っ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依頼表現を韓国語をより直接的な依頼表現をよく使い、日本語は間接的な慣用表現をよく使っ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依頼ストラテジーを視点によって分析した結果、韓国語と日本語は、英語とヨーロッパ諸語とは異なり、話者志向の依頼表現をよく使っ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Comparative Analysis of Requested Stroke Requests for Japanese and
 Korean Requests
 – Analysis of Discourse Completion Tests of University Students

Kim, Jong-Wan

In this paper, we have considered the expressions of request and request for recommendation letters to university instructors in Korea and Japan from the viewpoint of intercultural linguistics.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1980s The Cross-Culut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 "(CCSARP).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Korean and Japanese dependency strategies differed from each other, and that Korean language was used frequently as a call - to - call department, such as "teacher" and " The use of ancillary parts used as expressions to reduce the FTA is a good example of how Korean expresses good expressions of appreciation On the other hand, I found that Japanese is using a lot of expressions such as apologies, etc. I use Japanese expressions more often than Japanese, and Japanese often use indirect idiomatic expressions I understood.